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9월 1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70호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가을 문턱 사찰서 독서삼매경

먼산의 단풍으로 가을이 왔음을 알지만 가까운 사찰에 와 있는 가을은 이제야 눈에 들어온다. 용문산의 푸르름이 노랗고 붉게 물들어 가을이 왔음을 알린다. 서늘한 산바람이 불어오는 용문사의 한 누각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삼매경에 빠진 불자의 모습이 쪽빛 물감을 풀어놓은 단풍만큼 아름답다. 양평 용문사=노덕현 기자

고속도로서 名刹 표지 사라진다

집중취재 **도로공사, 2003년 이후 사찰 표지판 철거 예고**

10년 넘게 지침 무시하다 최근 민원들로 작업 나서

스키장 되는데 사찰 안 돼 문화재 몰이해라는 비판도

관리지침 개정에 힘 써야

"합천하면 뭐가 연상됩니까?"
"해인사입니다."
"속리산은요?"
"…."

"법주사 아닙니까. 천 년 이상 있어왔고 국민 속에 일체화됐을 뿐 아니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어느 사찰은 표시하고, 어느 것은 안 한다는데 일괄적으로 법을 정리하든지 더 편하게 안내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월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사장직 무대행에게 질의한 내용 일부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국내 고속도로 표지판에 표시된 한국불교 사찰과 4대강 보(洑) 등 지역명소를 철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문제제기 한 것이다.

지침 어긋나… 불교계 최대 피해

이처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한국불교 명찰(名刹)들의 이름 등을 삭제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다.

도로표지 관리지침은 2003년 전후로 내용에 차이가 있다. 2003년 이전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중 건조물 · 사적지 · 경승지' 등을 고속국도 관광지표지에 명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3년 5월 31일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고속국도는 제외됐다. 또한 2006년부터는 국가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 등록한 세계문화유산도 표시할 수 없게 변경됐다. 그럼에도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채 고속도로 안내판에 사찰과 지역명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현재 사찰명만 200개에 달한다. 결국 이 작업이 진행되면 불교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 개정은 10여 년 전에 이뤄진 것인 데다 그동안 문제없이 표지판에 사찰명이 명기됐다는 점에서 의문을 낳는다. 또한 놀이공원과 스키장 등 제1 · 2종 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은 고속도로 안내판에 표시 가능해 문화재에 대한 몰이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지침 준수를 위해 작업에 착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급증한 민원 때문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최근 민원이 많이 들어와 어쩔 수 없다.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타 종교계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지만 확인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민원에서 종교적인 것은 확인이 안 된다. 그저 관련 기준에 어긋나는데 무분별하게 표지판이 설치된다는 내용이 많다"며 "사찰뿐만 아니라 다른 안내표지에 대한 것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03년 관리지침 개정 이전에 설치된 것은 존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지만 존치 대상은 수덕사와 월정사 등 몇 군데뿐이다. 관리지침이 빠른 시일 내 개정되지 않으면 도로공사는 지침에 맞춰 업무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속한 지침 개정 요구돼

이에 대해 앞서 주호영 의원 지적처럼 고속도로 안내판에 이름을 올린 사찰들이 대부분 지역을 대표하고, 오래 전부터 전통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관리지침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13일 '문화재사찰 안내 고속도로 표지판 철거방침 철회 및 관련 지침 개정 요청' 공문을 관계부처에 발송했다. 규정 개정은 제쳐놓고 규정에 없다는 사유로 철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조계종 기획실장 정문 스님은 "문화유산에 대한 안내를 확대해도 부족한 마당에 있는 것도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철거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관리지침에 개인소유 상업시설인 스키장, 온천, 놀이공원은 허용하면서도 소중한 문화재를 안내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공문 요청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협조를 얻어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는 등 관리지침 개정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국토교통부 측은 '검토단계'라고만 설명할 뿐 관리지침 개정의 가능성이나 일정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사례를 비롯해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 것인지 알아보고 있다. 도로공사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한 것들에 대해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3년 관리지침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오래 전 일이지만 알아보니 표지판이 광고판으로 사용되면서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개정한 것 같다. 게다가 고속도로와 해당 시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시 광고판 활용 사례나 고속도로와 표지판에 명기된 시설 간의 거리 및 방향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이교도 소행의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사찰명을 쓰는 것이 다종교사회에서 쉽지 않다면 '○○사 국보○호 ○○보살상' 등과 같이 문화재를 알리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 사찰이 아닌 문화유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의 산사' 모든 것을 담다

등재추진위 학술총서 발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전통산사에 대한 기초 연구 성과를 망라한 학술총서가 발간됐다.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등재추진위)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대상 7개 산사의 다양한 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결과물인 〈학술총서〉 2종(무형유산, 도면 · 사진집)을 발간했다"고 10월 25일 밝혔다.

제1권인 〈무형유산〉은 등재 대상 산사의 의례와 축제 등 무형유산을 담고 있다. 각 산사의 무형유산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과 가치를 기술했다. 또한 대표적 의례에 대해서는 조사보고서를 첨부했다. 이를 통해 산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의례와 축제로 '살아있는 유산'임을 증명하고 있다.



무형유산 · 도면사진집 2종
산사 등재위한 연구 자료

제2권인 〈도면 · 사진집〉은 등재대상 산사의 가람배치도와 가람 배치 특징, 주요 건축물의 사진과 도면을 수록했다. 각 산사의 주요 건축물의 배치와 구조, 현재까지의 보존상태 등을 담고 있다. 등재추진위는 '산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앞으로의 보존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학술총서〉는 총 7종을 발간할 예정이며, 기록유산 · 자연환경(식생) · 유형유산 등의 발간이 진행 중이다.

등재추진위는 "〈학술총서〉는 등재대상 7개 전통산사에 대한 기초연구 사업으로 축적된 각 분야의 연구 자료들을 집대성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은 지난 1월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re)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등재 여부는 내년 7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97권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18권 출간

출간 불사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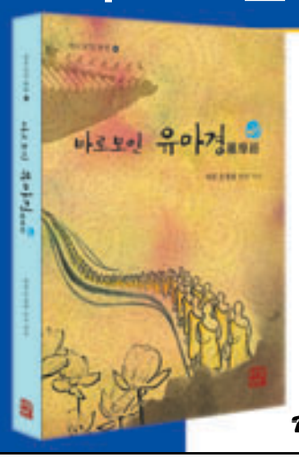
방거사 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가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바로보인 유마경



禪의 일상, 禪의 누림!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라 할 것이니, 불보살님이 교화하는 경지에서의 깨달음의 실경과 신통자재한 방편행을 보여주는 최상승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가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구, 바로보인)